

# ‘닥공’ 대신 수업 고르는 재미... 달라진 고교 교실

〈닥치고 공부〉



조대여고가 일반고 맞춤형 ‘방과후 학교’ 진로교육활동의 하나로 마련한 작가 초청 강좌가 지난 13일 열렸다. 홍세화 작가는 이날 광주시 중앙도서관에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대여고 제공〉

광주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정규수업(7교시) 이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후학교)과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다. 수시모집 및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한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늘어난 점도 무관하지 않다. 교사 주도 문제풀이형 참고서에만 집중하던 수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역 일반고들의 변화를 짚어봤다.

### ● 대광여고, 정규 수업 부교재 없애

대광여고는 올해 정규 수업 시간 내 부교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동안 일선 고교에서는 교과서 외 부교재로 쓰이는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거나 유형을 파악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대신, 학교측은 그러나 부교재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학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측은 시행 초기,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밀어붙였고 점차 정착되는 분위기다.

대신, 학교측은 학생 중심의 토론·협동수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내 차례의 관련 연수를 실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생각의 힘’,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등의 책을 교사들과 돌려봤다.

교사·학생이 함께 하는 수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게 유양식 교장의 설명이다.

장덕고도 ‘정규수업시간에 교과용도서를 배제한 부교재 사용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인건으로 올린 바 있다.

### ‘야자’ 대신 학교 간 수업 공동 운영... 과목 다양화 과제 조선대 미술·광주여대 승무원 강좌... ‘학종’ 반영 기대

#### ■ 관심 끄는 대학 연계 심화과정 ‘꿈꾸는 공작소’

(5월 8일~6월 30일 운영)

광주교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창의융합형 초등학교사 A·B
광주여대	매주 목요일 "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그대
전남대	매주 수요일 "	나를 찾는 영미문학 여행
	매주 수요일 "	생물은 위대한 스승
조선대	매주 수요일 "	미술감상 동서양 문명 기행
	매주 수·목요일 "	우리는 연못에서 디젤을 캔다
한국폴리텍대학	매주 수요일 "	4차 산업 혁명의 친구 로봇

#### ● ‘연 학교가서 물리 II 듣고올게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 광주수완고. 서로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 9명이 미술사 수업을 듣고 있었다. 5명은 수완고 학생이지만 성덕고(1명), 첨단고(3명) 등 인근 고교에서 왔다.

이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없어 거점학교인 수완고에서 매주 두 차례(수, 토) 수업을 듣는다.

이같은 수업 방식은 광주교육청의 ‘고교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능해졌다. 확립적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해 원하는 다양한 수업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수강 학생이 적어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 수업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은 또 수업 취지에 따라 수강 인원의 30%는 반드시 다른 학교 학생을 받도록 했다.

문정여고가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영화방송제작’ 수업의 경우 문정여고 학생들 외에도 광주고·광주여고·광주일고·전남고 학생도 참여한다. 정광고에 개설된 ‘고급수학 I’ 과목 수업을 듣는 9명 중에는 문정고(2명)·광주일고(2명)에서도 왔다. 현재 15개 학교에 19개 과목이 운영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애초 19개 학교에서 31개 과목을 마련, 수업을 진행기로 했지만 일부 과목 수업의 경우 참여 인원이 적어 재공모한 상태다. 다만, 대부분 공립고만 참여한다. 과목 개설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 대학 가서 강의 듣는 고교생도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인 이른바 ‘꿈꾸는 공작소’ 세부 계획을 확정, 참여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10~30명의 고등학생들이 광주지역 대학 교수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진로와 관련된 심화 과정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커리큘럼도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대학 강의를 통해 심화할 수 있게 하거나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전문가와의 토론, 실습·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한층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

광주교육대의 경우 ‘창의융합형 초등학교사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대학 박사급 이상 강사가 참여한다. 전남대도 ‘나를 찾는 영미문학’, ‘생물은 위대한 스승’ 등을 테마로 한 5개 강의를 진행한다. 조선대는 ‘우리는 연못에서 디젤을 캔다’, ‘미술감상을 통해 본 동서양 문명의 기행’ 등 5개 테마 프로그램을, 광주여대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그대들에게’를 비롯,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폴리텍대학도 ‘4차 산업혁명의 친구 로봇을 만나보자’는 주제를 비롯, 4개 강좌를 대상으로 고교생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남부대는 ‘스킨스쿠버와 함께하는 안전교육’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오는 5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들 프로그램 참여 기록은 학교생활 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 란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에 기록되며 강좌당 70% 이상 출석해야 이수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대입 전형의 변화에 맞춰 희망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가 대사라면 국제 문제 어떻게 풀까?

### 제20회 송원여고 모의 유엔

“본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여성 대표 비율이 2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입법 기구 여성 대표 비율(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여성 인권 신장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박시은·중국 대사역·송원여고 2년)

“최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8개국에서 모인 헝스턴 그룹 회원들은 본국에서 유전자편집 기술을 배아, 줄기세포, 생식세포 등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초기발생과정 및 질병을 연구하는 데 큰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의 윤리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선영·네덜란드 대사역·2년)

지난 13일 ‘제 20회 송원모의유엔’ 행사가 열린 송원여고 도서관. 80여명 참석자들의 눈은 각국 입장을 발표하는 대사들에게 쏠렸다. 각국 대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적 대책’과 ‘줄기세포 연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를 놓고 이틀간 열띤 토론을 펼치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모의 유엔’에 참석한 송원여고 학생들이 의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송원여고 제공〉

### 교육단신

#### 21일 전남과학축전 개막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2017 전남과학축전’을 연다. 이번 축전 기간에는 과학체험마당, 과학창의성경진대회, 과학전시회 등이 열리며 전남·중·고교생, 교사, 학부모 등 8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대 여수캠퍼스 100주년 포럼

전남대는 여수캠퍼스 100주년을 맞아 지역 수·해양 산업의 100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포럼을 연다. 전남대는 ▲북한수산업발전과 남북수산업협력(5월) ▲수산업안전관리(6월) ▲여성해

양관광 활성화(9월) ▲해양수산자원 관리방안(10월) ▲여성·광양항의 지역경제 효과(11월) ▲수산업 공적 개발 원조 사업(12월) 등을 주제로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 18~20일 고교 영어듣기평가

광주·전남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지역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한다.

#### ‘공자가 보는 현대인의 삶’ 강좌

순천대는 오는 27일 70주년기념관에서 서 임동춘 제주대 교수를 초청, ‘공자(孔子)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공자의 언행을 통해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강좌를 연다.

#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급매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sup>2</sup>(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바로옆
- 시세 4억 3000만
- 급매 4억 1500만원

문의 010-9203-6161